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1호 【루계 제25384호】 주체105(2016)년 8월 28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중동포단체들과 동포들이 축하전문들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중국 단동시조선족기업가협회를 비롯한 재중동포단체들과 중국 단동항공상무유한공사 홍경리 심청송을 비롯한 동포들이 축하전문들을 드리였다.

축하전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6돐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시는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혁명생애의 전기간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강의한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고 축하전문들은 높이 칭송하였다.

축하전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희생적인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보루로 우뚝 솟아 빛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시여 장장 50여성상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거대한 업적을 우리 민족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길이 전해갈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대원수님은 온 겨레의 심장속에 주체의 선군대양으로 영생하신다고 축하전문들은 강조하였다.

축하전문들은 우리 민족의 최고령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며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조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중의 성공〉》, 《김정은령도자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하게 되였다고 강조》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일제히 특별보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25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특대소식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번 《북극성》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성공중의 성공이라고 하시면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적들의 제재와 봉쇄, 압박의 최사슬을 끊고 어떻게 무섭게 솟구쳐오르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예고없이 부닥칠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핵무기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개발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중의 성공, 승리중의 승리라고 평가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였다고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감시소에서 이번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이제는 조선의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여졌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국과 남조선이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북조선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것이라고 경고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민망, 환구망, 중국보도망, 쿠웨이트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영국신문 《가디언》, 프랑스의 AFP통신,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ABC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교도통신, 《니홍게이자이신붕》, 《도꾜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도 《김정은위원장께서 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 지도, 만족 표시》, 《조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중의 성공〉》, 《김정은령도자 조선이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하게 되였다고 강조》 등의 제목으로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란의 프레스TV방송과 파르스 루데이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우의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시대에 힘있게 과시되는 청년강국의 위용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의 반향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는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청년중시정치와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에 대한 경탄이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애민정치를 활발히 펼치시는 속에서도 《청년강국의 기치》를 드시고 새 세대 청년들과의 사업, 청년중시정치에 특별히 힘을 넣으신다고 평하고있다.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 8월 청년절경축행사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2014년 9월 말단청년단체조직 일군들이 참가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를 소집하시고 서한도 보내주시는 등 《최고지도자로서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계신다고 전하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 연설에서와 신천박물관에 대한 현지지도때에는 청년들을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과 반제반미사상으로 교양할데 대해 강조하시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이께서 청년교육과 청년정신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서한들과 신년사, 연설들에서 청년들을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할 젊은 주력부대, 미더운 동지, 전우,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우시였으며 우리 청년대오가 튼튼하기에 마음이 든든하다, 청년들의 힘으로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크게 독려하고계신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자신께서 청년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담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 최고의 공연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신데 대해서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어려차례나 찾으시여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와 더불어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선군청년문화를 창조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커다란 승리라고 선언하신데 대해서도 크게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강국건설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신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 글들을 내고있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중시행보》를 보이시는것은 청년조직을 당의 전위조직으로, 청년들을 함께 미래를 책임지고 새시대를 이끌어나가야 할 세대,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강화해나갈 근간으로 보시기때문이라고 전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년령별통계를 볼 때 북에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가 제일 많고 이 시기에 태여난 세대는 두번째로 많다고 하면서 북은 그 공고한 미래를 위해 청년들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중요시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북에서는 청년층이 인민군대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주요대상건설에서 돌격대역할을 하면서 약동하는 젊은 조선을 내외에 과시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시대에 백두산청년강국의 영웅적기상과 불패의 위용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정치에 의해 높이 발휘되는 청년들의 영웅적위훈과 아름다운 미덕들은 남조선사회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 못할 현상들이라고 하고있다.

김정은시대에 북의 청년들은 중요계기때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을 뗑세하고 노래를 불러도 《김정은장군 묵숨으로 사수하리라》를 부르면서 청년강국건설의 역전기들을 마련하신 자기 령도자를 받들고있다, 북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끼는 등 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있다고 언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북체제를 수호하는데서도 청년들이 앞장서고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8월사태때와 올해 2월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에 접하여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탄원을 하였다고 언론들은 널리 보도하였다.

최근 북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처녀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떠받들리우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들을 바치는 청년들의 소행이 련이어 배출되는가 하면 젊은 층속에서 자기 령도자의 단정한 외모를 따라배우는 바람이 불고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청년들이 개인의 리익만 추구하며 범죄를 일삼고 꿈과 희망, 사랑은 물론 삶자체를 포기한 《7포세대》, 《삶포세대》라는 말말속에 무의미하게 살아가고있는가 하면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혀 군복무를 기피하고 이민가는 현상이 만연되고있다고 하면서 북의 청년들과는 너무나도 판이하다고 개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청년들은 200일전투의 선봉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항일의 전구에 타번지는 혁신의 불길

백두산영웅청년려단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 싱스러운 영웅청년신화창조자들의 발구름소리가 백두전역에 쩡쩡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따라 백두산지구에 달려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맡은 대상공사에서 혁혁한 위훈을 떨쳐가고있다. 엄혹한 자연과의 대격전을 벌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선군시대 청춘들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운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거창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창조와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군으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삼지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백두광명성 솟아오른 정일봉과 더불어 유서깊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정답게 안겨오고 꿀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땅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내가 이 중요한 과업을 청년들에게 맡겨주었다는것을 알려주면 온 나라 청년들이 화답하여 들고일어날것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로 수행하여야 할 전투임무를 현지에서 직접 주시였다.

또다시 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청년돌격대원들은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삼지연군을 본보기군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또다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할 충정의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아박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새 전투장에로 신속히 기동하였다.

기동을 단 15일동안에 끝낸 려단에서는 백두산지구에 병실들을 전개하고 통나무와 막돌을 확보하여 공사에 진입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춘의 담력과 본때로 삼지연읍지구 공공건물건설 및 보수, 강하천제방쌓기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백두산지구건설에서 청년강국의 기상을 떨쳐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백두청춘들이여! 삼지연군건설에서 만리마속도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자!》, 《청년들이여! 삼지연군건설을 청년들에게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하자!》라는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며 청년돌격대원들은 건설의 날과 날을 기적과 위훈으로 주름잡고있다.

《가자! 백두산으로 만나자 삼지연에서!》

항일의 나날 김대장 우러러 백두산으로 구름처럼 모여들던 열혈청년들처럼 이런 신념의 구호를 웨치며 온 나라 방방곡곡의 청년들이 백두산지구로 달려오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따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내달리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산지구건설에서 또다시 청년강국의 기상을 떨쳐 세상을 들었다놓을것이다.

특파기자 전철주

1.5배의 풀베기실적 기록

각지 농촌들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혁명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청년돌격대, 청년근위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그 어디나 청년판으로 흥성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농촌들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이 당면한 풀베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촌들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서 수십일동안에 수십만의 풀을 베여들임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의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북도에서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도안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은 강성할 래일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을 따라 오직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더욱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풀베기에서 애국적열의를 높이 발휘하고있다.

창성군에서는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이 200일전투의 담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풀베기일정계획을 매일 15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박천군, 피현군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도 청춘의 기백이자 조국의 기상이고 청년대오의 전진속도이자 백두산대국의 힘찬 활력이라는 드높은 자각을 안고 최근 이틀동안에만도 각각 수천의 풀을 베여들이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특히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크나큰 긍지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 풀베기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을 비롯하여 도안의 많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도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헌신적복무로 수놓아가려는 열의로 가슴을 끓이며 풀베기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황해남도 농촌들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도 풀베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안악군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은 곧바로의 정신, 드세찬 공격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을 지니고 투쟁을 벌려 풀원천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일정계획보다 매일 1.2배의 실적을 내고있다.

김정숙군, 백암군을 비롯한 량강도 농촌들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은 산악도 떠옮기고 날바다도 메우면서 시대를 뒤흔드는것이 청춘시절의 보람이고 멋이라고 하면서 풀베기를 전투적으로 벌렸다.

평양시, 평안남도를 비롯한 다른 시, 도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도 풀베기전투의 맨 앞장에서 날에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각지 농업부문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의 투쟁으로 풀베기전투에서는 혁신적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 활발

려명거리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백만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세계를 압도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있으며 당중앙이 작전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온 나라 200일전투장마다에서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려명거리건설장에 달려나온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이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해당 부문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려명거리건설착공식이 있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안의 대학들, 각 구역들에서 달려온 연 8만 5 000여명의 청년들이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에 참가하여 1만 2 100여㎡의 흔석, 2 000여㎥의 목재를 비롯한 많은 량의 물동운반과 6만 7 000여㎡의 지대정리 등 방대한 작업과제들을 수행하였다.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은 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여러 시공단위들에 달려나가 물동량운반과 지대정리, 자갈깨기뿐아니라 기초굴착과 혼합물보장 등 어려운 작업과제들도 솔선 맡아 수행하여 청년전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에서 공부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김일성종합대학대대의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이 제일 어려운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룡남산의 아들딸들답게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특히 소대장 류근이동무를 비롯한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2학년 1반의 청년대학생들은 소대전원이 매일 려명거리건설장으로 나와 맡겨진 전투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대대, 김형직사범대학대대, 평양건축종합대학대대, 평양기계종합대학대대, 평양콤퓨터기술대학대대와 성, 중앙기관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7월 20일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에서 맡은 대성56-107호동 살림집건설장에 달려나가 백수십㎥의 혼합물운반을 스스로 맡아함으로써 18층 만장우에 물조완공의 기발을 휘날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이 벌리는 기백넘친 위주약대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선동은 각 시공단위의 건설자들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평양외국어대학대대의 청년대학생들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우리는 만리마기수》를 비롯한 혁명적이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노래들로 위주약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만경대구역, 선교구역, 보통강구역을 비롯하여 평양시의 각 구역들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하루전투를 마치고 매일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향한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불꽃튀는 전투장마다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속에서도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은 건설에 필요한 많은 량의 흔석과 기공구, 식료품을 비롯한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여러 시공단위들에 보내주고있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대대,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대대, 인민봉사총국대대와 성, 중앙기관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매일 맡은 전투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도 속도전청년돌격대대원들의 옷수리도 해주고 구미에 맞는 많은 음식들도 마련하여주어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당의 호소에 화답하여 청년동맹기발과 청년돌격대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물불을 가림없이 산도 바다도 단숨에 떠옮기는 이런 미더운 청년전위들이 있기에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며 려명거리완공의 그날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현지보도반

과학기술도서관건설 힘있게 추진

함경남도청년돌격대에서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동해안의 공업도시 함흥시에 함경남도과학기술도서관이 새롭게 일떠서고있다.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함남땅에서도 련이어 창조해갈 불타는 애국충정을 안고 공사에 떨쳐나선 함경남도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7월말 단 3일동안에 새롭게 제기된 수백㎥의 기초굴착과제를 끝내였다.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골조공사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휘틀설치를 위한 선행공정을 맡은 기술중대원들은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코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열흘 남짓한 기간에 600여개의 천공작업을 진행하여 휘틀조립전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기계화수단을 적극 받아들여야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청년돌격대원들은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20여m의 경사구간에 벨트콘베아를 설치하여 혼합물운반속도를 종전보다 수십배로 높이였다.

골조공사를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은 청년돌격대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혼합물생산공정에 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너도나도 뛰여들어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백윤기동무를 비롯한 기술중대의 돌격대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혼합물의 원료배합을 원격조종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람을 완성한데 이어 시운전을 위한 작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비상한 혁명열, 투쟁열에 떠받들려 도과학기술도서관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현지보도반

련합기업소에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

백두산위인들의 품에서 빛나는 조선의 청년절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첫 청년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는 뜻깊은 올해의 8월 28일!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에서 거대한 분수령을 이루게 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주체105(2016)년 청년절을 앞두고 진행하도록 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온 나라 청년들과 인민들이 격동으로 가슴끓이고있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청년들 또한 많지만 당의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승리자의 긍지높이 청년절을 경축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절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조선청년들의 영원한 명절입니다.》

8월 28일, 이날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숭승장구하여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충정과 억센 기상, 청년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뜻깊은 명절이다.

자랑하자 우리의 청년절

인류력사에 청년들은 어느때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혁명의 계승자로 내세우고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로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청년절이 제정되던 나날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연이 되새겨진다.

주체79(1990)년 5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절을 제정할데 대하여 연구해보아야 하겠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였다. 청년절제정이 청년들에게는 물론 온 나라의 경사로 되는 일이였던것이다.

우리는 청년들이 앞으로도 우리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위훈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고무하여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을 고무하여주기 위하여서는 청년절을 제정하는것이 좋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일군들은 청년절을 어느날로 정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청년절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의있는 날이여야 하겠는데 그런 날은 셀수없이 많았다.

그러던 주체80(1991)년 1월 15일 청년동맹의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문건을 접하게 되였다. 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창립된 날을 청년절로 정하는것이 적당할것 같다고 활달하게 쓰신 친필이였다.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력사적시기에 결성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갈길 몰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진정한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떠나 어찌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력사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나의 혁명활동은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감회깊이 쓰신것처럼 수령님께서는 1920년대 혁명투쟁에 나서시던 그때에 벌써 청년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피를 흘렸건만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한탓에 많은 청년들이 헛되이 목숨을 바치고 지어 종파분자들의 파쟁의 희생물로까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에서 진정한 청년조직절성의 절박성을 절감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공청의 결성,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계승자로 키워 조국해방을 안아오시려는 10대의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위업이였다.

공청의 지도와 방조밑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조국이 알고 혁명이 알고 력사가 아는 혁명가들로 자라났던가.

라자구에서 공청위원으로 사업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된 한 청년은 공청조직과 간부들의 이름만 대면 호강스럽게 살게 해주겠다는 적들의 회유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공청조직과 간부의 이름을 부를테니 받아쓰시오. 나를 지도한 간부의 성은 〈공〉가요, 이름은 〈산당〉이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는 《공청원 리순희동무》라는 제목의 회상실기가 있다. 끝까지 조직의 비밀을 지켜 용감히 싸운 녀공청원이 사형장에서 부른 노래는 다름아닌 《공청가》였다.

앞길이 구만리같은 열혈의 투사들이 단두대에서도 《공청가》를 소리높이 부르고 꽃나이청춘을 아낌없이 바치며 원쑤 일제와 싸울수 있은것은 력사가 불속에서 강철로 단련되듯 혁명조직의 품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청년들의 대부대, 그것은 사실상 천자만보다 더 위력한것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쌓으신 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하도록 하시고 가혈한 조국해방전쟁을 거쳐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청년들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창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청년절의 제정, 진정 여기에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이 열린 뜻깊은 8월 28일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만대에 이어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웅심깊은 뜻이 깃들어있다.

당시의 격동적인 사실을 직접 체험한 한 일군은 그때를 못 잊어 이렇게 말하였다.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다. 비단우에 꽃이라는 이 말을 우리 인민들은 좋은 일이 겹쳤을 때의 기쁨을 뜻하여 써왔다. 그러나 그 말에도 다 담을수 없는 청년절제정의 경사,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청년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신 경사중의 자랑높은 경사였다. …

청년절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최상의 사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절이 제정된지 5돐에 즈음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신것은 오늘도 청년운동력사의 갈피에 금문자로 새겨져 빛나고있다.

8월의 무더운 나날 어려 단위들을 찾으시고 수많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느라 그처럼 바쁘시건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우리 시대 청년운동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시였으니 청년절을 빛내여주시고 청년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얼마나 크나큰것이였는가.

8월 28일, 정녕 주체적청년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성스러운 우리의 청년절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성대히 경축하는 8월의 광장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다지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당을 따라 변함없이 곧바로 걸어가리라. 그 길에서 우리의 청년절을 소리높이 자랑하고 빛내이리라.

그 이름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청년동맹의 기발이 자랑스럽게 휘날린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그 이름 빛나게 아로새긴 기발을 높이 추켜든 500만 청년전위들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친다.

얼마나 긍지높은가.

력사는 수령의 이름으로 빛나던 청년조직이 반혁명세력의 도구로 전락된 사실을 교훈으로 새기였다. 조직의 지도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된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비극을 사람들은 기억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존엄높고 성스러운 이 부름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백만 청년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청춘의 삶을 빛내이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우리 청년운동의 력사적사명은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 있다고,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사회주의청년운동의 지침이며 생명선이라고 하시며 사로청(당시)의 명칭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러우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고 합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겨주신 이 친필에 청년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담겨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주인공들로 떠받들리우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외국의 한 청년활동가는 이렇게 썼다.

《항상 공기속에 살아숨쉬면서도 공기의 귀중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조선의 청년들이여, 력사의 행운아들이여, 그대들이 누리는 수령복을 목숨과도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시라.》

혁명을 끝까지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미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념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관점과 태도이다.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

청년교양문제를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시였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주체80(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청년문제와 관련한 어떤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있다.

그날 청년동맹의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공청이 당에서 떨어져나갔다고 선포한것을 아는가고 하시며 준절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청년조직은 반드시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당의 후비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

당의 령도를 청년동맹의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청년조직이 영원히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였다.

그때뿐이 아니였다. 주체84(1995)년 1월 1일의 첫아침 다박솔초소를 찾아 선군의 의지를 더욱 굳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저녁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일군들을 만나시여 당, 군대, 사로청이 기본이라고, 우리 당은 청년들을 믿고 혁명을 하고있으며 청소년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는 교시를 주시였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제시하신 이 구호를 피끓는 열혈의 심장마다에 간직하였기에 우리 청년들은 세계적인 정치파동속에서도 당을 따라 승리의 한길로만 줄달음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날리였다.

청년들을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억센 혁명가들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따라 청년영웅도로건설의 완공이라는 력사의 기적을 이룩한 청년들의 위훈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유훈을 관철하는 통이 큰 작전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였다.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 잘하는 청년들에게 다문 한가지라도 배불리 먹이자고, 만두는 뭐니뭐니해도 초간장이 좋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그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신 우리 장군님, 하키에 그날의 돌격대원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꿰기밥과 통강냉이죽을 드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 수도의 이름난 식당의 풀방석에 앉았던 격정을 오늘도 추억하는것이다.

그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 청년들은 돈자루도 쌀마대도 아닌 흙마대를 등에 지고 하루에도 창북 80~90리를 달릴수 있었고 함마와 정대가 모지라지도록 쨍쨍 쇳의 음향을 울리였다.

사람들은 사로청(당시) 제8차대회에서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충정의 맹세를 다지던 력사의 그 시각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바다마냥 대회장을 붉게 물들였던 기록들, 천만산악을 깨치듯 온 장내에 진감하던 청년들의 우렁찬 함성…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당을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해나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신념의 맹세가 오늘도 500만의 심장을 쾅쾅 두드린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청년행진곡》을 안겨주신 숭고한 뜻을 우리 청년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그 믿음, 그 기대를 비껴담고 휘몰은 타오른다.

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여 당의 위업을 맨 앞장에서 옹호보위하는 청년전위가 될것을 확신하시며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혁명의 해불봉을 제주봉마냥 이어받은 새 세대 청년들의 대오가 나아간다.

그 대오의 앞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와 함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이 빛을 뿌린다.

청년강국 만세!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이 땅우에 펼쳐진 청년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주체101(2012)년의 청년절로부터 시작한다.

그무렵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우리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었다.

이러한 때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선길에 계시면서도 청년절경축행사대표들을 예정대로 평양에 불러 청년절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전선으로, 청년대표들은 평양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신것이였다.

《나는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청년절을 맞이하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남녀청년들에게 멀리 전선에서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축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라 경애하는 그이께서 응당 받으셔야 했다.

축하문의 구절구절을 새기며 온 나라 청년들은 또 한분의 절출한 위인을 모시여 더욱 빛날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였다.

돌이켜보면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시건만 창립기념일을 맞으며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친필서한을 보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 정 은

2012. 1. 26.》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때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는 력사의 교훈으로 남았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혁명의 혈통, 신념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는 위대한 현실이 펼쳐지고있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떠나 청년강국으로 존엄높은 내 조국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지난해 당보에 실린 천성—성산천지연호 통식배수갱공사에 참가한 평안남도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에 대한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올해 2월 어느날, 새벽 3시도 퍽 넘은 때 김영조청년돌격대가 생겨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도당의 책임일군에게 거듭 당부하시였다. 당조직들에서 이들의 애국심을 더욱 키워주고 잘 보살펴주며 이끌어주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내세워야 한다고, 청년들의 소중한 애국심에 접하고보니 우리 당은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했다는것을 돌격대원들에게 전달해주고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안은 청년돌격대원들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산악같이 일떠섰다.》

천군만마, 이제는 너무도 귀익은 말로 되였다.

때두대지에 청춘언제를 쌓아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리고 사랑스럽고 미더운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만나신 뜻깊은 자리에서도 청년들을 천군만마라는 부름에 담아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당이 불러준 천군만마야말로 청년강국의 참모습이며 그것은 곧 조선의 힘이다.

뜨거운 격정속에 어려온다. 청년들과 관련한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사소한것이라도 깊이 관심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이.

인생길을 잘못 들었던 청년들을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결혼상까지 차려준 초급당위원장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우리 원수님께서 정말 고맙다고 한자한자 써주신 친필글발이 눈물속에 어려온다. 20살 《처녀어머니》 장정화동무의 소행이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스러우시여 안아주고싶은 심정이였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해주신 사실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이어가실 때 수도의 이름난 식당의 풀방석에 앉았던 격정을 오늘도 추억하는것이다.

그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 청년들은 돈자루도 쌀마대도 아닌 흙마대를 등에 지고 하루에도 창북 80~90리를 달릴수 있었고 함마와 정대가 모지라지도록 쨍쨍 쇳의 음향을 울리였다.

사람들은 사로청(당시) 제8차대회에서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충정의 맹세를 다지던 력사의 그 시각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바다마냥 대회장을 붉게 물들였던 기록들, 천만산악을 깨치듯 온 장내에 진감하던 청년들의 우렁찬 함성…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당을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해나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신념의 맹세가 오늘도 500만의 심장을 쾅쾅 두드린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청년행진곡》을 안겨주신 숭고한 뜻을 우리 청년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그 믿음, 그 기대를 비껴담고 휘몰은 타오른다.

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여 당의 위업을 맨 앞장에서 옹호보위하는 청년전위가 될것을 확신하시며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혁명의 해불봉을 제주봉마냥 이어받은 새 세대 청년들의 대오가 나아간다.

그 대오의 앞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와 함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이 빛을 뿌린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악독강식의 법칙에 물젖은 자본주의나라의 청년들속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어제날까지 한교실에서 공부하던 동무들에게 칼부림을 하는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성행하여 국가와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위훈의 창조자, 미덕의 주인공들로 되고있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이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누가 막을수 있겠는가.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반공화국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던 그때 조선인민군입대, 북대를 탄원해나선것도 우리 청년들이였다. 백두의 칼바람 몰아치는 발전소건설장에 거듭 찾아오시여 청춘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친부모도 주지 못한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안고 우리의 청년돌격대원들은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의 창조자라는 값높은 칭호도 지니였다.

지난해 9월 백두대지에 또 하나의 청춘기념비로 솟구쳐오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청춘언제를 거니시며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여》**라고 우리 원수님께서 격정에 넘쳐 읊으신 시의 구절구절에 우리의 청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자랑과 긍지가 다 담겨져있다.

하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그처럼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라고.

청년강국!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자랑높은 우리 조국에 인류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을 더해주었다.

혁명의 주력군, 계승자,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 우리 당의 믿음직한 길동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조국의 미래이며 나라와 민족의 꽃,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이 수많은 성스러운 칭호와 함께 우리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이라는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지니게 되였다.

올해의 청년절을 맞으며 새 세기의 첫 청년대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우리의 청년절은 청년강국의 명절로 그 지위를 더욱 새롭게 하였다.

8월 28일은 89년의 력사를 전하며 소리높이 웨친다.

청년강국 만세!

※ ※

수도 평양이 들끓고 온 나라가 설레인다.

우리의 미더운 청년대표들에게 사람들 누구나 아낌없는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500만 청년들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조국해방을 안아온 항일혁명의 산아들처럼,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조선의 기개를 떨치고 천리마를 불러온 세대의 청년들처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을 절사옹위한 청년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을 안아오자.

경축하노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의 청년절을.

영광있으라, 김정은시대 조선청년운동이여!

본사기자 백 영 미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밟아갈 결의에 넘쳐있는 청년대학생들

—주체사상탑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더 많은 과일과 축산물을 생산하자

인민보안성 군무자들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대동강돼지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들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보안성 군무자들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대동강돼지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들이 2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인민보안상 최부일동지와 강필훈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인민보안성 일군들, 군무자들, 농장과 공장의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보안성 군무자들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최부일동지의 보고에 이어 인민보안성 부상 남상국, 대동강과수관리국 당위원장 박철호,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지배인 김영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뜨거운 복양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꼭 1년만에 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지가 휘도록 무수히 달린 사과알들을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땅이 꺼지게 말했다고, 포도송이같다고, 잎 절반, 사과 절반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 인민보안성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결사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군무자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정보당 50t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는것과 함께 생산성이 높고 맛좋은 과일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 생산을 정상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수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과수업의 세계적인 발전동향에 맞게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전국의 과수농장들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대동강돼지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지배인 조룡철의 보고에 이어 초급당위원장 선우광, 작업반장 정광혁, 로동자 백충혁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살찐 돼지들이 욱실거리는 모습이 놀만 하고 그득히 쌓여있는 고기가공품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높은 생산성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돼지사양관리방법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위생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고기가공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가공품의 가지수를 늘이며 더 많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총정의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더 많은 과일과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년분조원들의 생활을 혈육의 정으로

안주시 연풍리당위원회에서는 청년분조원들의 생활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어 그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청년분조가 조직된 첫날부터 청년분조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기 위한 문제를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실속있게 집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청년분조원들의 침실과 식당, 청년학교와 세목장을 잘 꾸려주고 침구류와 문화오락기재, 체육기자재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줌으로써 그들이 혁명적랑만과 희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주 청년분조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특히 리당위원회에서는 청년분조를 위한 날을 정하고 리당과 관리위원회일군들이 청년분조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그들이 당의 믿음과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농사일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혈육의 정이 넘치는 그 마음에 떠받들려 청년분조는 조직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알곡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모범청년분조칭호도 영예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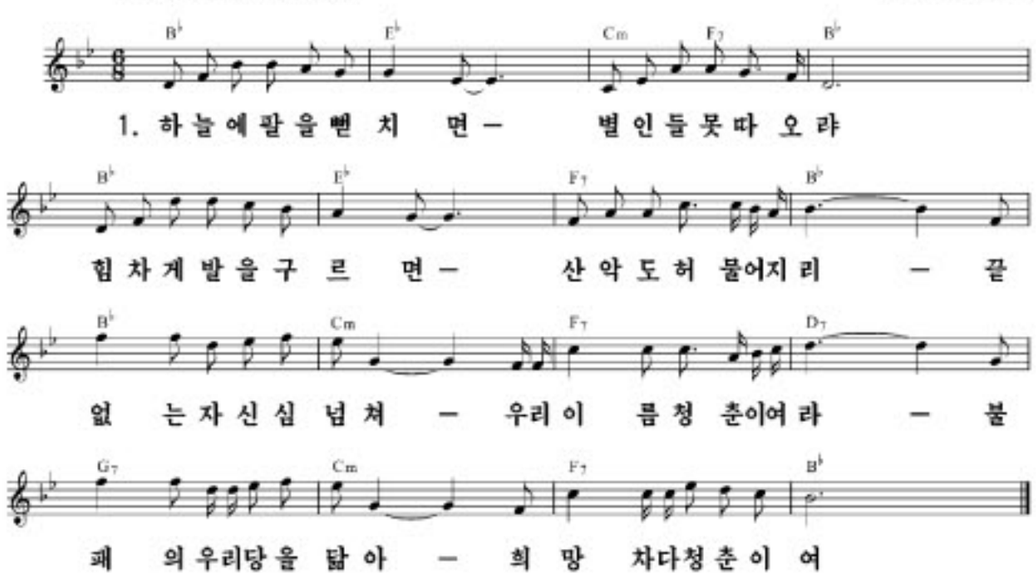
오늘도 이곳 청년분조원들은 자기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며 손잡아 이끌어주는 농장일군들의 진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농사일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윤 영 관

청 춘 송 가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랑만이 넘치게 (♩=67)



2. 조국의 가장 큰 짐을 스스로 떠메리라
사랑도 제일 열렬히 증오는 서리발치게
언제나 애국에 불타 우리 이름 청춘이여라
열정의 우리 당을 닮아 피끓어라 청춘이여

3. 사선의 험산준령도 남먼저 헤쳐가리
혁명을 위함이라면 불속도 뛰여들리라
기적의 신화만 새겨 우리 이름 청춘이여라
강철의 우리 당을 닮아 용맹하다 청춘이여

4. 향도의 태양 따르는 신념의 별이 되리
백두의 대업 받드는 억척의 기둥 되리라
영원히 승리만 알아 우리 이름 청춘이여라
위대한 우리 당을 따라 빛발치라 청춘이여

500만 청년대군의 발구름소리 지구를 뒤흔든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만나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이 력사적인 대회를 계기로 청년조직의 위용이 만리대공을 치뚫을듯 용솟음친다. 마치도 몇백개의 수소탄이 동시에 폭발한듯 지구를 통채로 뒤흔드는 500만 청년대군의 충천한 기개가 우리의 가슴을 백두산청년강국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자부로 세차게 끓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은 영웅적인 새 세대이며 이러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조선청년운동사에서 분수령을 이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군대오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그 벅찬 감정을 전하고싶어 우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만나보았다.

비서 장현철동무는 청년동맹의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이른 지금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에 맞게 청년교양에 보다 큰 힘을 넣음으로써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맹장들로 키우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히 벌리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들을 찾는 청년들의 대오가 그칠새 없고 심장의 피를 펄펄 끓여주는 방송정론이 청년들을 200일전투의 전렬에로 떠밀어주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김정은장군찬가》, 《발걸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조선청년행진곡》을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가지고 다채로운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벌리는 한편 청년들이 미풍선구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온 나라에 긍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의 이런 적극적인 사상공세속에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다.

대회를 앞둔 몇달동안에만도 라래치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이 수십명이나 배출되고 수만명의 청년들이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풍관목들, 지성어린 물자들을 금수산태양궁전에 보내준 사실은 수령숭배, 수령옹위를 체질화한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준다.

어찌 그뿐인가. 200일전투기간에만도 3 000여명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이 탄광, 광산, 협동농장, 섬초소 학교, 대건설전투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하고 수백명의 청년들이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였으며 많은 청년들이 부모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고 영예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여 고상한 미덕과 미풍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가꾸어가고있다.

참으로 기쁜 일이다. 지구상 곳곳에서 리기와 방종에 물젖은 청년들의 부패타락하고 이지러진 인생관이 민족의 전도에 암흑의 장막을 던져주고있는 오늘 이 땅에서는 500만 청춘들의 청신하고 고우한 향기가 공기처럼 흘러넘치고있는것이다. 남들이 번쩍거리는 번화가에서도 불안과 위구의 한숨을 내쉴 때 우리 인민이 천하제일강국을 확신에 넘쳐 그려보며 신심드높이 나아갈수 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 아니겠는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방탄벽을 이룬 500만의 충정의 대오, 조국과 혁명을 위해 한몸 기꺼이 바치는 열혈의 혁명투사,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대부대야말로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중의 국력이며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민족의 제일재보인것이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부장 송남웅동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계기로 청년들속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장들이 청년판으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회를 계기로 보다 활발해진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려명거리건설, 영웅청년위훈기념비건립공사, 해불제육단 숙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공사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전동맹적으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8월 25일현재 5년분인민경제계획완수자 2명, 4년분인민경제계획완수자 3명, 3년분인민경제계획완수자 70여명, 2년분인민경제계획완수자 510여명을 포함한 1만 7 000여명의 청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지도밑에 청년들속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이 적극 벌어지는 속에 200일전투기간 청년명칭을 가진 18개의 대상을 비롯한 40여개의 대상건설이 완공되고 새로 생산되거나 원상복구된 730여대의 설비, 기대들이 《청년》호로 명명되였으며 540여건의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이 연구도입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계기로 청년들속에서는 높이 세운 200일전투의 일별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초급단체, 동맹원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기상이 하늘끝에 닿았습니다. 이 기세면 지구도 통채로 들어올릴것입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박철민동무의 신심넘친 그 목소리에 온 지구를 진감하는 500만 청년대군의 우렁찬 발구름소리가 실려온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백폭탄보다 더 위력한 선군조선의 진짜무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의 근본담보가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혁명의 교대자, 조선로동당의 교대자로 억세게 자라는 믿음직한 청년대군이 있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동맹조직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동맹조직들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주요한 요인은 순결성과 전투력이다.

그 어떤 잡사상에 추호도 오염되지 않고 오직 수령의 사상, 당의 사상만이 꽉 들어찬 사상적순결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위대오!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가 당의 의도에 맞게 도안의 모든 동맹조직들을 순결성과 전투력이 강한 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데 화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곧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입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동맹조직들의 순결성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은 청년동맹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 당의 방침들을 자로 하여 사상사업작전을 치밀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도안의 동맹조직들과 청년들속으로 들어갔다.

70일전투로 온 나라가 들끓던 지난 3월에도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배낭들을 메고 청년동맹조직들에 내려가 동맹원들에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였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5대교양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우고있다.

위원회에서는 모든 청년해설원들이 5대교양자료를 구비해가지고 독보와 해설, 돌려보기 등의 방법으로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어느 한 시의 혁명사적관 청년동맹원강사가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위대성선전을 실효성있게 진행한 긍정적소행이 발휘되였을 때 적극 내세워주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도안의 혁명사적부문 청년동맹원강사들과 청년해설원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이 보다 열기를 띠고 벌어지게 하였다.

혁명의 전세대들의 고결한 넋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중순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선구자들의 투쟁자료들을 도안의 청년동맹조직들에 내려보내주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해설모임, 실효모임 등의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전세대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기개를 높이 떨쳐나가도록 하였다.

이런 사업들은 도안의 청년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그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켰다.

사리원방직공장 직포공 김은하동무를 비롯한 3명의 청년들이 정량보다 더 많은 10여대의 직기를 다루면서 지난 6월까지 3년분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한 사실 등 도처에서 청년들의 위훈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다.

언제나 청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철주야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도청년동맹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들을 헤아려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청년동맹조직의 생명력은 순결성과 전투력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달리자, 만리마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청년들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질주하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청년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현재까지 이 공장의 청년들이 창조한 새 기적, 새 기록이 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8월 20일 하루만 놓고보더라도 건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청년들이 계획을 125%로 수행하여 새 기록을 세운데 이어 이튿날인 22일에는 방적종합직장 2정방직장의 청년들이 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여 그 기록을 또다시 돌파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몇시간후엔 새 기록이 아니였다.

3년분계획완수자, 2년분계획완수자, 년간계획완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청년동맹원 김옥향동무가 3년분계획을 8월 6일까지 남먼저 돌파한데 이어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준비직장 목순희동무가 3년분과제를 25일까지 수행하였다. 26명의 청년들이 2년분계획을 수행하고 290명의 청년들이 년간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끓어번지고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있다.

몹시 불편한 속에서도 계획보다 2대 더 많은 직기를 돌리던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전영옥동무가 기대곁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떠미는 작업반원들에게 그는 어떻게 말했던가.

《저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워주신 만리마기수의 한성원입니다. 그 영예를 떨칠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불사신같이 일어나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직기를 맡아안고 결사전을 벌려 8월 25일까지 2년분과제를 끝내고야 병원으로 떠났다.

청년동맹원 강정미동무의 정신세계는 또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지난 2월 년간계획수행을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 그에게 어머니가 앓는다는 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작업반원들이 억지로 등을 떠밀어 상원군에 있는 집에 갔던 그가 다음날 작업장에 나타났다.

어머니의 절절한 당부에 못이겨 전투장으로 다시 발려온 그의 손을 그러잡으며 작업반장도 반원들도 뜨거운것을 삼켰다.

이것이 어찌 한 직포공의 심정만이라 하겠는가.

온 공장의 청년들모두가 이런 불같은 각오를 안고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힘차게 내달리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김옥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마라손선수의 주로에는 결승선이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보람의 한길을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의 순회길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결승선이 없는 주로!

이것이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날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게 비약의 지름길을 질주하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청년전위들의 삶의 방식, 투쟁방식인것이다.

본사기자 최 영 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부총비서사이의 회 담 진 행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제씨에 두아르테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부총비서사이의 회담이 26일에 진행되였다.

제씨에 두아르테 부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위원장인 쟈코브 게들레이흘레키사 주마 대통령과 그웨데 만다쉐 총비서가 올리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두 당사이의 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에 보내주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지지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아프리카인민의 투쟁을 적극 성원해준 조선인민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는 력무기보다 더 위력한 불배의 일심단결을 이룩한 조선로동당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울것이라고 말하였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전국집행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는 쏠리 마푸일레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부총비서와 회담하였다.

쏠리 마푸일레 제2부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블레이드 은지만데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자기 당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고 하면서 진보적정당들의 분렬을 꾀하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요한네스부르그 출발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26일 요한네스부르그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리본 모슬리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국제부 부부장과 김창렬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청년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순천시당위원회에서는 청년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을 적극 내세워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시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는 이 사업을 주관부서나 몇몇 일군들의 사업이 아니라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킨것이다.

시당위원회는 우선 책임일군들에게 청년동맹조직들을 한개 단위씩 맡기고 그들이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지도사업요강에 청년교양문제를 반영하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또한 부서책임일군들이 시청년동맹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주사업총화때마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총보해주는 사업을 제도화하게 하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이 힘을 넣은 문제는 다음으로 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지도의 실효성이 최대로 보장되게 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보내신 감사문과 청년동맹사업과 관련한 상식자료를 가지고 일군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을 조직한것이 그 실례이다.

청년학교를 사상교양의 거점으로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을 때였다. 리수복청년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의 청년학교를 본보기로 정한 시당위원회는 이곳 당일군들과 함께 5대교양자료도 갖추어주고 단위의 특성에 맞게 청년교양을 참신하게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시안의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사업은 일군들의 실력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시당위원회가 힘을 넣은 문제는 또한 청년들에게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맡기고 실천투쟁속에서 그들을 청년강국의 맹장들로 키워나가고있는것이다.

70일전투가 시작되였을 때 시당위원회는 오은지수지의 불화보를 위한 불길공사를 모내기전선으로 끌내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누구에게 이 과업을 맡길것인가.

현장에서 열린 협의회의 분위기는 팽팽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굴뚝기를 해본 경험있는 기능공들로 력량을 편성하여 해제끼자고 제기해나섰다.

그러나 시당위원장 오용건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대담하게 청년들에게 맡깁시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감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것은 결코 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맹장들로 억세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협의회참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여 70일전투목표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의 하나인 오은지수지불길공사를 청년돌격대가 맡게 되였다.

시당위원회는 청년들이 활개치며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힘겨운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서도 쉴참에 오락회가 열리고 청년돌격대원들의 승벽심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체육경기가 벌어졌다. 공사장은 청년판으로 변했다. 돌격대원들의 비상히 앙양된 정신력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나흘이 걸려야 한다던 불길굴바닥콩크리트치기를 30시간만에 끝내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단 한달만에 불길굴을 관통시킨 청년돌격대원들은 불길굴피복작업도 한주일만에 끝냈다.

이뿐이 아니다. 시당위원회는 돼지공장건설과 유용동물보호구역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청년동맹에 맡겨주어 돌격대활동으로 해제끼게 하고있다.

이 과정에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맹장들로 성장하였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이것이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관점이고 립장이다.

온 시에 차넘치는 청년중시열풍에 떠받들려 학생소년회관이 특색있게 건설되고있다.

청년들을 위하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은 면모쇄신안의 고급중학교들을 통해서도 엿볼수 있다. 이곳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청년동맹사업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시당책임일군은 청년일군들과 함께 청년돌격대원들이 일하는 건설장과 농촌청년분조와 청년작업반에 내려가 초급일군들과 청년혁신자들을 만나 교양사업도 하고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군 한다.

시당위원회의 이런 사업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청년사업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워주고 청년동맹일군들의 주도성과 창발성을 높여주었다.

모든 당조직들은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처럼 청년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틀어쥐고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백승의 돌격침로따라 나아가는 무적강군—바다의 결사대

해군절에 즈음하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성공!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

불과 며칠전이였다.

선군조선의 불뢰성이 만리대공을 진감하던 력사의 그날은, 그 환희와 감격을 안고 맞이하는 더욱 뜻깊은 해군절이여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주체적인 해군무력창설과 그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해군무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바다로 기여드는 외래침략세력을 바다에서 섬멸해버려야 합니다.》

일찌기 항일전의 그 나날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위할 정규적혁명무력의 창설을 구상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혁명무력건설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적인 해군무력건설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해방후 조선인민군의 여러 군종과 함께 현대적인 해군무력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락철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35(1946)년 6월 수상보안대를 조직해주시고 그후 해군간부양성의 모체기지로 절수상보안간부학교의 터전까지 몸소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수상보안대를 모체로 확대강화된 정규적해군무력의 이름을 《조선함대》로 명명해주시고 주체38(1949)년 8월 28일 조선인민군 해군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 해군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전승의 신화들을 수없이 창조하였다.

그 빛나는 잘피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을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상시킨 어뢰정대의 위훈이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으며 1960년대 조국의 신성한 령해에 불법침입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세계를 경탄시킨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장병들의 무비의 용맹도 기록되여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슬하에서 백승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빛내여온 우리의 해군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더 장성강화되게 되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나날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군건설을 위해 바쳐오신 령도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주체적인 해군건설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날 해병들의 훈련도 몸소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대의 군인들이 훈련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일당백의 해병들로 억세게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충복탄정신, 육탄정신을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의 불사신의 해병용사들이 조국의 바다를 억척같이 지켜서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라는 더없는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몸소 어뢰정을 타시고 해병들과 함께 파도사나운 바다길도 헤쳐가시며 해병들은 조국의 바다를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 일당백해병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은 또 그 얼마이랴.

어느해 봄날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초소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이악하게 벌려온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여 병영은 물론 화력진지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정신이 번쩍 들게 꾸려놓은 군인들의 수교를 거듭 치하하시며 군부대군인들이 전투력강화와 부대관리에서 계속 전군의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장군님,

찾으시는 해군부대마다, 가시는 바다초소마다에서 해병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다심히 헤아리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무엇을 낳았던가.

지금도 잊을수 없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문헌들을 보위하기 위해 세찬 불길속에 주저없이 뛰여든 해병들의 모습을, 서해해상격전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충복탄정신, 멸적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원쑤들을 전률케 하던 그날의 용사들을.

실로 해군무력의 강화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는 우리 해병들의 가슴마다에 원쑤격멸의 투지와 용기가 천백배로 용솟음치게 한 힘의 원천이며 해병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로 억척같이 자래운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이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락철한 선군혁명령도따라 백승의 항로만을 수놓아온 주체의 해군무력은 오늘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건설사상과 령도풍모를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해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과 함께 파도세찬 항해길을 헤치시며 우리 식의 해군전법도 밝혀주시고 해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생활조건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병사들의 음식감 한가지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그이의 애민세계는 우리 해병들의 가슴가슴을 그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보주가 되시여 그들의 돌사진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남편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무모들과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비분을 금치 못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오늘도 해병들의 가슴을 팡팡 두드려준다.

불보다도 뜨겁고 육친의 정도 비길수 없는 그이의 전우애,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의 미더운 해병들은 조국수호의 항로에는 직선돌격침로만 있을뿐 변침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는 불굴의 공격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 만능해병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우리의 해군무력은 최첨단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다 갖추고 그 어떤 적대세력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수 있는 최정예무적강군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고있다.

지난해 5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완전성공에 이어 올해 4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한 사실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준 동시에 세계에는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가.

…미국핵무기전문가들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전략잠수함 탄도탄에 장착하면 조선의 핵공격능력은 더 커질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특히 조선의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분석해보면 미국과 남조선의 요격은 곤난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조선이 또 하나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을 보유했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였다, 미국과 남조선이 현실을 무시할 경우 더 큰 궁지에 빠져들게 될것이다라고 전한 외신보도들,

…조선이 수중발사한 탄도미싸일에 고체연료를 사용한것은 보다 기동적이며 위협적인 타격수단을 소유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집권자가 기자회견에서 조선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한다고 한 소리를 그대로 전한 미국의 신문통 세계의 수많은 외신, 방송들이 벅적 끓었다.

그 시각 백두의 훈련열풍으로 낮과 밤을 지새우며 원쑤격멸의 의지를 만장약한 일당백해병들의 마음속에 우뢰처럼 메아리치는것은 무엇이였는가.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이제는 남조선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때나 마음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이였다.

그렇다. 무진막강한 군력을 천백배로 다진 우리 조국의 신성한 령해, 령토와 령공을 감히 넘보는 원쑤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무자비한 불벼락을 퍼하지 못한다.

미해군력사에 수치스러운 한페지를 우리 세대가 또 한번 써주자고,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철의 의지를 우리의 해군용사들은 긍지높이 심장에 아로새긴다.

불세출의 선군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바다의 결사대 조선인민군 해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승의 돌격침로만을 주름잡는 강위력한 전투대오,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장정철

조국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가는 해병들

아흔아홉굽이에 바쳐가는 깨끗한 량심

통천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도로보수관리대 추지령청년도로소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통천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도로관리대 추지령청년도로소대원들은 모두 군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곳의 하나인 이곳으로 자원하여온 10대, 20대의 처녀들이다.

하기에 그들은 도로폭을 그전보다 5—6m 더 넓히며 용벽공사를 하던 그날에도, 수십리구간에 천수백개의 안전보호벽을 세우고 령의 입구와 정점, 중간부분에서 샘물을 찾아 휴식터를 만들던 그날에도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한것이다.

지난 7월에 있은 일이다. 하루일을 마치고 밤이 깊어서 잠자리에 들었던 소대장은 한밤중의 우뢰소리에 소스라쳐 일어났다. 도로폭확장공사를 위해 절토를 한 구간들이 무너져내릴수 있기때문이였다.

(사태로 도로가 막히면?)

이런 생각을 앞세우며 문을 나서려는데 부소대장도 따라나섰다.

《부소대장동무는 눈을 붙이십시오.》

《복우가 쏟아지는 이 밤중에 어떻게 혼자 돌아보겠습니까.》

이렇게 되여 그들은 문을 나서기 바쁘게 전지불을 켜들고 령의 정점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얼마쯤 걸음을 옮기던 그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절토구간이 무너져내려 도로가 막혀버린것이였다.

(날이 밝으면 많은 륜전기재들이 이 령을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때 소대원들모두가 해볼을 켜들고 달려왔다. 손에 삽과 들것, 함마, 정대 등을 쥔 그들을 본 소대장은 뜨거운것이 치밀어 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전설같은 력사를 펼치고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려는 청년들이 있는한 못해낼 일이 없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소대장은 밤중으로 사태로 막힌 도로를 열기 위한 전투작전을 펼치였다. 이렇게 되여 한밤중에 절사전이 벌어졌다. 들것이 넘쳐나게 물이 줄줄 흐르는 흙을 가득 담아들고 달리는 청년들, 쉬임없이 삽질을 하는 청년들…

이들만이 아니였다. 교대별로 함마를 휘둘러대며 집채같이 큰 바위를 까내는 청년들의 얼굴에도, 정대를 들어던 청년들의 얼굴에도 땀인지 비물인지 분간할수 없는것이 줄줄 흘러내리였다.

분과 초를 다투는 절사전이 벌어지는 속에 드디여 그들은 3시간동안에 도로를 가로막았던 사태를 가셔냈다. 새날이 밝자 그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는 륜전기재들을 본 그들은 이 한밤도 아흔아홉굽이의 령길에 청춘의 자서전을 새겼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후더웠다.

이때만이 아니였다. 수천m의 용벽공사와 수천m의 물도랑공사가 진행되던 그날에도 그들은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을 따르는 길에서 더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발휘한 부모들의 청춘시절처럼 살아야 한다는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였다.

아흔아홉굽이에 새겨가는 추지령청년도로소대원들의 자서전, 진정 그것은 인생의 가장 높은 령마루에서 청춘을 빛내이는 사람들만이 지닐수 있는 참된 삶의 자서전, 애국의 자서전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영광의 대회장에 우리도 함께

하나로 고동치는 심장들

전투는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있었다. 벨트콘베아주변에 오래동안 쌓여있던 방대한 량의 석탄무지를 긴급히 옮겨야 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청년들은 금탄기실안에서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삽날들에 불찌가 일었다. 수십kg은 실히 될 마대들이 청년들의 어깨에 실려 연방 벨트콘베아로 옮겨졌다. 걷는것도 성치 않아 모두들 뛰고 또 뛰였다.

하늘의 뭇별들도 조용고있는 깊은 밤이였으나 청년들은 잠들줄 몰랐다.

《하나 둘, 하나 둘!》

하차지장 초급청년동맹위원회 김송성동무의 선창에 호응하는 청년들의 우렁찬 함성이 밤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영광의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전투를 기어이 끝내자.

이런 충정의 일념으로 심장이 고동치는 청년들의 기세는 지구도 들었다놓을듯싶었다.

전투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마침내 청년돌격대원들은 대회를 앞둔 8월 25일 전투과제를 끝내고야말았다. 영광의 대회장과 잇닿은 뜨거운 심장들이 하나가 되여 낳은 자랑찬 성과였다.

서해의 날바다우에서

특지로부터 퍼그나 떨어진 검푸른 서해의 날바다한복판, 여기서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리는 용감하고 미더운 처녀들이 있다. 남포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 처녀어로공들이다.

《자, 동무들, 우리 대회에 참가한 초급단체비서동무의 몫까지 합쳐 오늘전투계획도 무조건 넘쳐 수행합시다.》

누군가의 힘찬 호소에 호응하며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로향숙, 방연희, 김은향, 김금향, 박선희…

오래동안 바다에서 보내야 하는 어로공생활은 처녀들에게 있어서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마다에서 하나로 박동치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청년들모두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고 청년들의 뜻깊은 대회합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였다.

밤낮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리느라 손에는 장갑이 박히고 눈에는 피발이 섰지만 누구 하나 불려서지 않았다.

양양된 그들의 열의와 불같은 헌신에 의해 이날의 물고기잡이실적은 150%라는 높은 기록을 세기였다.

저녁노을이 비낀 바다물결우에 만선기가 펄펄 휘날리는 배의 륜곽이 아름답게 비쳐왔다.

몸은 비록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의 날바다우에 있어도 마음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는 평양, 영광의 대회장에 있는 그들이였다.

녕변의 비단처녀들

《녕변의 비단처녀》, 이 노래와 더불어 온 나라에 알려진 녕변견직공장 직포공처녀들의 마음도 혁신의 새 소식을 안고 뜻깊은 대회장으로 달리고있다.

지난 25일까지 3직포직장 무분청년동맹위원회 3초급단체 동맹원들모두가 2년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의 앞장에는 초급단체비서 박금실동무가 서있다. 그의 인민경제계획수행률은 벌써 380%제선을 넘어섰다. 자기 정량의 3배에 달하는 6대의 직기는 물론 위권기까지 맡아 다루는 그의 불같은 모습은 직포공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부른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는 혁신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신임공들의 승벽심도 만만치 않다. 리해정, 명선화동무들은 6개월이 걸려야 할 기술전습기간을 훨씬 앞당겨 공장에 들어온지 불과 두달밖에 안되지만 벌써 기능공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공장의 청년동맹원들속에서 3년분인민경제계획완수자 9명, 2년분인민경제계획완수자 38명, 년간인민경제계획완수자 35명이 배출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들은 만족을 모르고 쉬임없이 달리고있다. 영광의 대회장에 마음을 얹고, 《녕변의 비단처녀》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본사기자 윤명철

예민한 판문점구역에서 감행되는 도발행위는 우리의 즉시적인 반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경무장 경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위기일발의 전쟁국면에 놓여있다.

이러한 때에 적들은 첨예한 판문점구역에서 8월 26일 저녁부터 측수높은 투광등으로 우리측 감시초소를 비쳐대며 우리 군인들을 자극하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이로 하여 우리 근무성원들의 신변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 정상적인 감시활동에도 지장을 받고있다.

우리측 근무성원들을 향해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자극적인 행위들을 감행해오던 도발자들이 또다시 고안해낸 투광등도발행위는 우리 군대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있다.

우발적인 사소한 행동도 순식간에 만회할수 없는 물리적충돌로 번져질수 있는 최대열점지역이 다름아닌 판문점이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이를 모르지 않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최대로 긴장시키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하고있는 이러한 도발행위는 우리 군대를 겨냥한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음모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리 군대를 심하게 자극하여 응당한 대응조치를 유발시켜놓고 그것을 도발로 오도해보려는것이 이번 도발행위가 추구하고있는 진의도이다.

지금 우리 판문점초병들은 도발자들의 준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우리측은 이미 형형색색의 도발이 감행될 때마다 알아듣고도 남으리만큼 경고하였고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단호한 징벌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도발자들에게 다시금 경고한다.

우리측에 마구 비쳐대는 투광등이 용납 못할 도발의 수단으로 락인된 이상 무자비한 조준사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의 면전에서 경거망동하는 도발자들의 운명도 달리 될수 없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주체105(2016)년 8월 27일

판문점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 여러곳 참관

김현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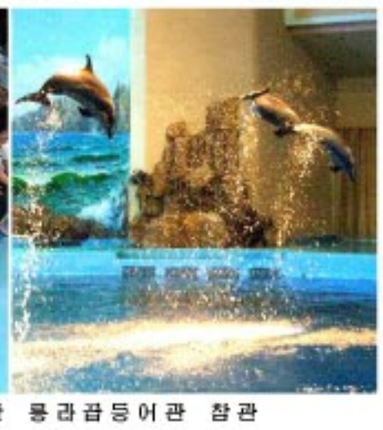
손님들은 먼저 과학기술전당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에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국보적인 건축물로 웅장하게 일떠선 과학기술보급거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훌륭히 꾸려진 릉라곱등어관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펼치는 곱등어들의 재주를 웃음속에 관람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 릉라곱등어관 참관

스스로 택한 길

2.8직동청년탄광 9갱 채탄7중대에는 탄부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석탄생산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한 녀성이 있다. 그가 바로 권명화동무이다.

남편을 따라 탄광마을에 새살림을 꾸린 때로부터 지난 20여년간 그의 가슴속에는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성실한 로동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고있는 탄부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떠날줄 몰랐다. 그리하여 언제나 막장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선 그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탄전이 충정의 70일전투에 산악같이 일떠섰을 때 그의 심장도 세차게 높뛰였다.

철야진군으로 끓어번지는 막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려는 그의 생각을 짱장인 남편 한승찬동무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지난 2월말 채탄중대에 자원진출한 권명화동무는 신들메를 조여매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채탄공들의 일손을 적극 도와주고있으며 충정의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몽골을 방문하는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출발

심영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2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백하 건설건재공업성 부상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딸리아 여러 정당소속 국회의원대표단 도착

안또니오 라써 이딸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딸리아 여러 정당소속 국회의원대표단이 2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된 긍지와 자부심 하늘땅에 차넘친다

어머니조국에 젊음을 더해주며 진군 또 진군

청년돌격대운동의 자랑찬 력사를 더듬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돌격대운동은 당의 원대한 구상과 경제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청년들의 애국적, 집단적혁신운동이며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키우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년대들과 더불어 청년돌격대운동이라는 뜻깊은 부름이 끝없이 이어져왔다. 위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귀중한 청춘시절을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온 수많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의 고귀한 땀방울들이 이 땅 그 어디나 뜨겁게 슴배여있다.

조국의 승리적진전에 활력을 더해준 그 빛나는 위훈을 우리는 오늘 뜻깊은 청년절에 즈음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청년돌격대의 빛나는 행로

뜻깊은 청년절을 맞고보니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혼강돌격대와 추수돌격대를 조직령도하시어 청년돌격대운동의 진통을 마련하시고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의 나날 민청돌격대를 조직하시어 청년돌격대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전선청년돌격대운동과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청년복구대활동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세차게 일어번진 청년돌격대운동의 물결속에 조국수호의 격전장마다에서 불멸의 위훈이 창조되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으며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전변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그 나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속도전청년돌격대, 8.28청년돌격대, 전국청년돌격대, 4.25청년돌격대, 배움의 천리길청년돌격대, 수도건설청년돌격대, 김전청년돌격대, 차광수청년돌격대, 오중흡청년돌격대 등 얼마나 많은 청년돌격대들이 태어났던가.

애국충정으로 충만된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이 아로새긴 위훈의 자욱들은 온 나라의 곳곳에 찍혀져있으며 그들이 창조한 재부들은 시대의 기념비로 빛을 뿌리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조선청년운동력사에 가장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백두대지에 아로새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나라의 철도전기화와 새 철길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철도현대화에 한페지를 새기고 국제친선전람관, 창광원, 광복거리 등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 속도전청년돌격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던 1970년대의 배움의 천리길청년돌격대, 김덕광업련합기업소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등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중요부문들에 달려나가 청춘의 구슬땀을 바친 8.28청년돌격대…

청년돌격대들의 뜻깊은 명칭에는 우리 청년들이 당을 따라 론바로 걸어온 성장의 길이 새겨져있고 우리 혁명의 력사가 담겨져있다.

하다면 이들의 위훈과 용출는 힘의 원천은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사랑이고 믿음이였다. 청년들을 전주보석에 비기시며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고 우리 당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정과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은 조국청사에 빛날 불멸의 서사시를 수놓으며 청년돌격대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한 영원한 젖줄기였고 위대한 시대정신을 창조하게 한 근본바탕이였다.

청년돌격대운동과 시대정신

청년돌격대운동의 거세찬 물결은 혁명의 매 단계마다 시대를 격동시키고 온 나라를 더욱 들끓게 하였다.

시대정신에 대해 말할 때 속도전청년돌격대가 태어나던 수십년전 그날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주체64(1975)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조직하는 청년돌격대는 새로운 면모를 갖춘 청년돌격대인것만큼 이름도 특색있게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속도전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이 벌어지는 시대의 정신에도 어울리고 청년들의 감정과 기개에도 맞게 속도전청년돌격대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나오게 되였다.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가 시대정신으로 떠아리친 1980년대에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삼천로탄광(당시)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이 다진 심장의 결의는 오늘도 우리 가슴을 울려준다.

《우리는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될것을 결의해나선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입니다. 우리모두 김혁, 차광수동지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갑시다.》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 전화의 영웅들의 조국수호정신이 나래치는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차광수청년돌격대, 김혁청년돌격대, 김전청년돌격대, 리수복청년돌격대 등 수많은 청년돌격대들이 방방곡곡에 조직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돌격대기발을 펄펄 휘날렸다.

젊음으로 약동하고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오늘의 시대정신, 천만군민의 심장을 끓게 하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은 바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다.

몸이 얼떡포각 난대도 오직 당이 정해준 길로따라 나아가는 곧바로의 정신,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배짱과 담력을 지니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드세찬 공격정신,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은 바로 백두청춘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창조한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진정 우리 청년들을 당의 뜻을 떤 앞장에서 받드는 시대의 전위투사로,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키워낸 청년돌격대운동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또 하나의 크나큰 자랑이다.

청년돌격대와 영웅청년들

청년돌격대운동력사에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름도 새겨져있다.

이천-세포 새 철도건설의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청년돌격대원들속에서는 17명의 로력영웅이 배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수많은 영웅들을 배출하며 위대한 전환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1980년대 첫 200일전투의 나날에 속도전청년돌격대의 한 영웅중대장은 어렵고 아름찬 과제가 앞을 막아나설 때마다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속도전의 위력으로 당을 옹호보위해야 할 돌격대원들입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의 본때를 보입시다!》

사람들은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칠리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대장이였던 류승남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있다.

일시 잘못된 길을 걸은것으로 하여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어머니당에서는 그를 품에 안아 새 출발을 하도록 보살펴주었다. 그 사랑이 있어 그는 청년돌격대 대장으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진정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손길아래 얼마나 많은 청년돌격대원들이 영웅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100여리 고속도로를 보란듯이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를 청년영웅도로로 부르도록 해주시고 수십명의 청년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할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발전소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뜻깊게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렇다. 영원한 태양의 빛발이 있어 청년강국의 력사에 찬란히 빛나는 청년돌격대운동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더욱 억세게 성장하였다.

이런 청년영웅들의 대부대가 있어 우리 조국땅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 있어본적이 없는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것이 아니랴.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의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은 조국의 전진에 약동하는 젊음을 주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해주며 최후승리의 펭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곧바로 내달릴것이며 그 진군대오의 앞에는 언제나 불멸의 태양기를 옹위하여 청년돌격대기발이 펄펄 휘날릴것이다.

강 효 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입니다.》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에게 끝없이 부어주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청년절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폭동의 발발을 기념하기 위해 청년절을 제정한 나라도 있고 종교활동가의 생일을 국가적인 청년절로 기념하는 나라도 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느 한 나라의 청년절때에는 독립전쟁기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희생된 청년들을 추모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이처럼 어디에나 청년들이 있으며 나름대로의 청년절을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혁명령도의 전기간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신 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뜻깊은 청년절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8월 28일이 청년절로 제정되여있다. 이날은 근 90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새형의 청년혁명가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이 열린 뜻깊은 날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만대에 이어주시기 위하여 이날을 청년절로 제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년 8월에 첫 청년절을 맞는 온 나라 청년들과 청년동맹일군들에게 보내신 서한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더욱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렇듯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이 있었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퇴폐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어 타락하고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앙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위력떨쳐왔다.

주체101(2012)년 8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청년절을 맞으며 온 나라 청년들을 성대한 경축행사장에로 불러주시고 자신께서는 멀리 전선길에 계시면서 뜻깊은 축하문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우리 청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정녕 내 나라의 청년절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답게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로 무진막강한 힘을 과시하도록 떠밀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영원한 태양의 축복이다.

이 땅에 변함없이 흐르는 태양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 청년전위들은 피끓는 애국의 심장으로 조국을 억세게 떠받들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의 기상떨치며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를 따라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진군해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오 혁 룡

청년절에 깃든 사연

영웅은 오늘도 청년들을 부른다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리 수 복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온 나라 인민이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에 둘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심로따라 목숨처 내달리는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의 자랑스런 모습들을 보느라니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 제8차대회장에 넘쳐흐르던 격동의 파도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붉은 기폭을 억세게 틀어쥐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500만의 용폭탄이 될 맹세를 다지며 우리의 청년들이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라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던 20여년전의 그 숭엄한 화폭이 오늘 또다시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노래와 춤이 있어야 하며 노래와 춤이 있는 일터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의 년대들마다에 높이 울려퍼졌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의 선창자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였다.

조선혁명의 첫 청춘세대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높이 부른 혁명송가 《조선의 별》, 가렬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지켜싸운 불타는 고지에서 높이 부른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청춘들이 심장으로 부른 노래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고난의 행군시기 청년영웅도로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장들마다에서 청년들의 지정곡인양 높이 울려퍼졌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사로청 8차대회장에서 새 세대 청년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를 들은 만경대구역 축전1동에 사는 한 전쟁로병은 흥분과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오늘 우리 혁명의 승리를 다시금 확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조국도 없다고 심장으로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나는 우리 혁명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판가리결사전에 나섰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김정일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성스러운 투쟁에 나섰으니 이 빛나는 계승이야말로 우리의 힘이고 승리인것이다!》

노래가 없으면 청춘이라고 말할수 없다.

노래를 떠난 청춘은 향기와 생기를 잃은 꽃과 같은것이다.

그러고보면 청춘과 노래는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청년들이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해당 사회의 면모는 물론 나라와 민족의 장래까지도 가늠할수 있다고 하던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장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빨찌산가요, 새 세기의 혁명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수천명 청년전위들의 대합창으로 쩌렁쩌렁 울려퍼진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닌 투철한 사상정신세계와 끝없이 밝고 창창한 조국의 앞날에 대한 뚜렷한 확증이다.

다른 나라 청년들이 꽃바람타령, 날라리노래를 부르며 전세대들이 이룩한 혁명의 유산우에 변태와 향락의 독버섯을 뿌릴 때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백두산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전구로 달려가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고있는 우리 청년들의 심장마다에는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은 혁명가요들의 사상정서적힘이 용암처럼 흐르고있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나라가 흥하면 노래소리가 높기마련이다.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주고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우리 청년들은 승리와 기적으로 빛나는 백두산청년강국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고있다.

하기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노래를 잊고 산다면 그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청년이 아니라고 준절히 말하는것이 아니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야말로 선군시대 청춘의 상징이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도 우리 청년들은 노래와 함께 키어이 안아올것이다.

우리 당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에 받들린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승리의 그날이 더욱 앞당겨지고 선군청년전위들의 우렁찬 노래소리에 강산이 더더욱 밝아지는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

그래서 영광의 대회와 더불어 뜻깊은 청년절의 아침을 맞는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그처럼 벅차고 강산에 넘치는 환희는 더없이 큰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 성 민

수 필

노래와 청춘

청남구 신리농장 청년축산작업반은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여 일을 잘하는 작업반으로 소문난 단위이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서 련일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이 작업반에 요즈음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메기양어풍경이다.

이곳 청년축산작업반에는 원래 메기양어장이 없었다. 총정의 200일전투기간에 당에서 바라는대로 메기양어도 본때있게 내밀 결심을 안은 청년축산작업반원들이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에 새로 메기양어장이 꾸려졌다.

청년축산작업반장 김봉두동무가 지난 6월 수천마리의 새끼메기들을 가져왔을 때였다.

작업반의 청년동맹초급일군인 신일남동무와 청년분조장 최성진동무가 제일먼저 앞채를 메고 떨쳐나섰다.

《피가 한동이씩 끓어넘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감을 통채로 맡겨주십시오.》

《김메기전투는 계획대로 내렸다면서도 양어못을 며칠내에 와닥닥 파제끼겠습니다.》

이들의 위를 이어 청년분조원들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청년강국의 믿음직한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안고 고향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훌륭히 꾸려갈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메기양어못 바닥과 키공사는 단 며칠동안에 끝날수 있었다.

수십㎡의 감탕을 마대전을 벌려 들어낸 이곳 청년들은 뒤이어 서축도 새로 하고 물이 새여나갈세라 비닐막막도 자체로 구입하여 양어못둘레막이를 끝끝히 한 다음 양어장주변에 칠 울타리그물도 제손으로 맸다.

뿐만아니라 어떤 청년동맹원은 여기저기를 뛰여다니며 어분사료도 구해왔고 또 어떤 청년동맹원은 때없이 양어장에 찾아와 물온도는 알맞춤한가, 단백사료는 부족되지 않는가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군 했다.

청년들모두가 이렇듯 성수가 나서 메기양어에 떨쳐나서니 가져올 당시 불과 몇g밖에 안나가던 새끼메기들이 이곳 메기양어장에서 이제는 1kg이 넘는 메기들로 자랐다.

나날이 모습을 달리하는 작업반의 새 풍경을 통해 우리는 당에서 바라는대로 고향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는 이곳 청년작업반원들의 드높은 기상과 애국의 슴결을 가슴뿌듯이 안아보았다.

본사기자 백 성 근

청춘의 열정으로 펼쳐가는 새 풍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대학생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그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최첨단공업대학을 찾았던 우리는 새로운 사기유전체제작방법을 연구완성하여 얼마전에 발명가의 영예를 지닌 전자공학부 4학년 학생인 김혁철동무를 만났다.

어떻게 발명을 할수 있었는가라는 우리의 물음에 김혁철동무는 동무들과 선생님들의 방조가 컸다고, 특히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에서 공부하는 최원호동무가 연구를 완성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대학도 서로 다른 두 학생의 공통의 성과였다.

자기에게 연구종자를 깨우쳐주고 자료작업과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주며 같이 밤을 새우고 자신들의 연구결과도 아낌없이 내놓은 선생님들, 자기들의 지식과 열정까지 합쳐 도와나서고 연구에서 전진이 이룩될 때마다 제일처럼 기뻐하던 동무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김혁철동무의 모습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이곳 일군들과 교원들은 김혁철동무가 배움의 열의도 높고 연구심이 강한 학생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는 학업성적에서도 전과목 최우등생이다.

지금 김혁철동무는 학생과학연구소조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시간을 쪼개가며 과학탐구활동에 자신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그는 연구사업은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였다고, 끝장을 볼 때까지 꾸준히 노력할 때 귀중한 결실도 안아올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높은 리상, 원대한 포부, 이것이 없이 어찌 청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김혁철동무의 얼굴에는 당의 뜻대로 20대, 30대에 세계를 놀래우는 과학자, 박사가 되려는 강렬한 지향이 어려있었다.

그는 올해초에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기념 청년학생들의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자기의 첫 성과를 출품한 이후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을 더욱 심화시켜 올해에 진행되는 여러 전시회들에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내놓으려고 하고있다.

그만이 아니였다. 학급동무들 모두가 학생과학연구소조에 망라되여있으며 전원이 대학기간에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쟁취할것을 결기해나섰다.

이들은 벌써 조국을 위한 보답의 첫걸음을 내짚고있는것이다.

김혁철동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전자공학부 교원인 로혜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발명가에로의 그의 첫걸음을 떼여준 스승은 제가 아닙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떠나 그의 오늘과 같은 성장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스승의 손길에서 현대과학기술의 당당한 주인으로, 창조의 거인으로 자라나 만리마시대를 빛내여나갈 일념에 넘친 우리의 청년대학생들,

이들은 당과 조국,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학습도 전투로 여기며 과학탐구활동도 줄기차게 벌려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조국번영의 세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는 이런 미더운 청년대학생들이 있기에 위대한 청년강국인 우리 나라의 래일이 더욱 밝은것이다.

본사기자 강 철 웅

보답의 첫걸음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청년탄부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있다.
— 명 대 탄 광 에 서 —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북청군 2중3대혁명붉은기 룡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농장의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참된 주인, 만리마시대의 선구자들로 억세게 키워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조직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는것과 함께 모든 청년들이 백두청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영광의 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올해에 20여정보의 과수원건설이 제기되였을 때 초급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채로 청년동맹조직에 맡겨주고 농장의 청년들이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처럼 본때있게 맡은 일을 해제끼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당조직의 믿음과 기대속에 농장의 청년동맹원들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완강한 청년돌격정신으로 과수원건설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농장의 청년들은 청년돌격대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탁아소를 비롯한 여러동의 공공건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웠다.

바로 이 벅찬 투쟁과정은 청년들을 농장의 믿음직한 주인, 청년강국의 참된 주인들로 억세게 키워온 의의깊은 과정이였다.

로농통신원 주 순 화

농장의 참된 주인들로

승리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전통이다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자주와 선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이룩해온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이고 전통이다.

그 영광의 력사에는 이 땅에 밀려들었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원한 지난해 8월의 대승리가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그 누구의 지원도 동정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침략전쟁야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생명을 지킨것은 결코 그 어떤 우연이 아니였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비한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마음한뜻으로 조국수호전에 과감하게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후 수십년동안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선군의 위력, 군사강국의 위력으로 적들의 계속되는 침략적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시고 언제나 승리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비범한 령도력과 그이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성새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영원한 승리의 원천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8월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이후 무수히 닥쳐왔던 전쟁위기가 최절정에 달하였던 극히 위험천만하고 첨예한 운명의 시각이였다. 당시 괴뢰군부깡패들은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등대고 전전선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반공화국삐라풍치들을 어지럽게 날려대다 못해 우리 령토를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까지 란사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삶의 모든 명예를 찬탈하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침략책동이였다.

적들의 악랄한 군사적도발책동에 우리 혁명무력은 전선지대에서의 준전시상태진입을 포함한 비상중대조치를 취하였다. 천만군민은 서리발총창을 비껴들고 멸적의 명령만을 기다렸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은 기정사실화되였다.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정세를 우려속에 지켜보고있던 그 시각 우리 조국, 우리 겨레를 위하여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던 중대결단을 내리시고 사태의 극적전환을 이룩하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망동을 단숨에 짓부시고 만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적들의 가슴팍에 멸적의 총구를 들이댄 상태에서 북남대화력사상 전례없는 고위급긴급접촉을 주동적으로 마련해주시여 무전무협의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저들에게 불의위협 멸망의 운명을 두려워한 괴뢰당국자들이 북남고위급대화마당에 끌려나오고 그 결과 쌍방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이로써 기승을 부리던 전쟁의 난파도는 물거품처럼 꺼져들고 긴장완화의 중대한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온 세계가 8월사태의 정정을 두고 《김정은령도자의 외교술과 령도술의 승리》라고 높이 격찬하였다.

8월의 대승리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법칙으로 다시금 새겨주었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고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과의 판가리결전을 벌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지난해의 8월사태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북침야망을 드러내면서 반공화국대결과 새 전쟁도발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일대에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유사시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악명높은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괴뢰군부깡패들은 군사분계선일대와 서해열점수역에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결정한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지난 18일 괴뢰군사분한당들이 그 무슨 《처절한 응징》이니, 《대응의지과시》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며 군사분계선일대의 전반적전선에서 수백문의 각종 포들을 내놓아 최대규모의 포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데 이어 22일부터 북침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그리고 민용수단들까지 동원된 가운데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광기를 띠고 감행되고있다.

괴뢰들은 이번 연습에 유사시 우리의 핵심대상들과 전략기지들을 선제타격하는것을 주되는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된다고 내놓고 떠벌이고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번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이 감행되고있는 속에 벌어진다는데 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지난해 8월과 같은 일촉즉발의 첨예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박근혜역적패당의 죄악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교훈을 새기지 않으면 패전의 력사는 되풀이되기마련이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이 지난해 8월사태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가소로운 도발을 걸어온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침략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민족의 숙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다.

동족이 내민 선의의 손길을 한사코 뿌리치고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의 길, 통일의 길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길을 택한 박근혜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파멸과 죽음뿐이다.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타격앞에서는 히세를 부리며 배비해놓은 모든 침략전쟁장비들이 순식간에 폭양아래 엿가락처럼 되고만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승리는 언제나 정의의 수호자들인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것이다.

라 설 하

대결광신자의 무엄한 악담질

박근혜역도가 구린내나는 입투정을 쉴새없이 놀려대고있다.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소식에 기절초풍한 역도는 미친년처럼 치마바람을 일구며 괴뢰군전방부대에 나타나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이니,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침방울을 튕기며 대결광기를 부렸다. 이날 《경제난》이니, 《동요》니 하며 우리를 헐뜯어대던 역도는 나중에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에까지 도전하며 선불맞은 암개마냥 날뛰였다. 박근혜역도의 망발은 우리 공화국의 거세찬 진군기상에 혼명이가 빠진 대결광신자의 악에 받친 삿대질이며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감과 극도의 무지가 혼탕된 독설이다.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힘차게 과시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소식에 와뜰 놀란 역도가 입에서 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해댄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하지만 골통에 든것이란 쥐뿔도 없고 시야가 코등에 가붙은 천하의 멍텅구리, 송장의 악취가 물씬물씬 풍기는 늙다리귀신이 감히 하늘에 주먹질하려든것이야말로 추호도 묵과할수 없다. 박근혜역도의 망동은 최고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천벌을 받아 마땅할 대역죄이다.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는 무적의 보검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그런데 박근혜역적패당은 극단적인 대결의식에 물젖어 《위협》이니 뭐니 하고 동족을 악랄하게 걸고들고있다.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한시바삐 제거하여야 할 위협은 바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가해오는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위협이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악명높은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수 없는 극히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위협이면 이보다 더한 위협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적패당이 저들의 죄악은 탕반우에 올려놓고 파렴치하게도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위협》으로 걸고드는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도발이 아닐수 없다. 그것이 저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는것과 함께 각계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싸드》배치소동에 명분을 세워보려는 비렬한 술책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친미사대와 평화파괴책동으로 동네북신세가 된 박근혜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으로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이니 뭐니 하고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그따위 나발질은 역도의 가긍한 처지만을 더욱 드러내보이고있다.

카관은 목숨이 경각에 다달은 괴뢰역도가 그 주제에 《동요》니 뭐니 하고 남을 시비하려든것이다. 인민사랑의 정치가 활짝 꽃피난 일심단결의 화원인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그 무슨 《동요》를 운운하는 천치는 시각이 비뚤어지고 머리가 텅 빈 박근혜역도밖에 없다.

도대체 역도가 누구를 흉볼 계제가 됐는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쑈독재를 일삼아온 괴뢰집권세력은 지금 각계의 《정부》투쟁으로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려있다. 무식한 도깨비 부작 무서운줄 모른다고 박근혜역도는 사고력과 판단력이 결여되다보니 지승길이 대분박인 주제에 오히려 우리에게 삿대질해대며 만사람을 웃기고있다.

우리는 박근혜역도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해 악담질해댄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민족에게 재앙만 몰아오는 박근혜의 정망스러운 입질에 대해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늙다리악녀는 송장내풍기는 입부리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에까지 도전해나서며 천만군민의 치솟는 격분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천박한 사고와 반역적인 독재통치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망쳐놓고 제풀에 화가 나서 이제 와서는 하늘에까지 도전하는 박근혜역도에게 마지막으로 단단히 경고한다.

지금 백두산혁명강군은 우리의 눈부신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미쳐날뛰는 청와대암독사를 가차없이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복수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박근혜역도는 세치 허바닥을 요사스럽게 놀려대며 쉴새없이 내뱉은 독설의 대가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은 정 철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 부위원장 강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운동령도사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 부위원장 게브레헬라씨에 솔로몬 케브루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청년강국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선 사적관을 돌아보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년대와 세대를 이어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수놓아온 조선청년운동의 발전로정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청년문제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조선의 청년들은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겨올수 있었으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조직력,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힘있는 청년조직으로 강화될수 있었다.

혁명의 년대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슬기와 용맹을 떨친 조선청년들의 투쟁자료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오늘 조선청년들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이어 청년들을 굳게 믿어주시며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다.

수백만의 젊은 애국의 청년대오가 있기에 조선은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가진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청년들이 있다고 하여 사회가 저절로 들끓고 활력에 넘치는것은 아니며 청년강국이라는 이름은 마냥다고 하여 가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청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조선의 현실은 태양의 빛발을 떠나 아름다운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의 품을 떠나 청춘의 삶과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전렬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조선의 청년전위들을 더없이 부러워하고있다.

조선은 진정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이다.

우리는 앞으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투쟁경험을 적극 따라배워 에티오피아청년들에게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겠다.

【조선중앙통신】

《싸드》배치 결사반대, 목숨걸고 반대한다

경상북도 김천시민 1만여명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김천 《싸드》반대투쟁위원회의 주최로 경상북도 김천에서 《싸드》배치를 막기 위한 결의집회가 진행되였다.

《싸드결사반대》 등의 띠를 미리에 두른 김천시민 1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협의가 당연히 필요없다고 한 《새누리당》 의원의 망발을 규탄하면서 김천뿐아니라 남조선 그 어디에도 《싸드》를 배치할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그들은 《싸드》가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싸드》없는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이 마음놓고 살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효용성도 립증되지 않은 《싸드》배치를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싸드》에 의한 아무런 피해도 없다고 하면서도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시민들이 전자기파와 관련한 신뢰성있는 정보가 없어 불안해하며 남조선을 뜨고싶어하고있다고 그들은 절규하였다.

그들은 《싸드》배치를 반대하면 무작정 《종북》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면서 박근혜통치하에서 이런 말을 듣는것이 어이없다고 비난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김천시민 위협하는 싸드배치 즉각 철회!》, 《싸드배치 안돼!》 등의 구호들이 씌여진 선전문들을 들고 《싸드배치 결사반대, 목숨걸고 반대한다!》고 웨쳤다.

집회에서는 민중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지역갈등과 경제파탄을 초래할 《싸드》배치를 끝까지 막아낼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이어 김천시장과 김천《싸드》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항의의 표시로 삭발하였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싸드》를 물리칠수 있으며 그것은 시민들이 단결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난과 조소만 받는 독재자의 헛나발

박근혜역도가 8.15를 맞으며 한 그 무슨 《경축사》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신랄한 조소와 규탄을 받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역도는 《대량살상무기개발과 도발위협의 즉각 중단》이니 뭐니 하고 동족을 미친듯이 걸고들었는가 하면 《싸드》배치와 로동개악 등 남조선 각계가 견결히 반대하는 반역정책들을 고집스럽게 강행할 속심을 다시금 드러내놓았다.

남조선 각계는 역도의 나발질에 대해 《력대 최악의 망언》, 《자기변명과 반대진영에 대한 비관만 란무》, 《후안무치한 고백》 등으로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괴뢰집권자의 이번 《경축사》는 그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총체적실패를 보여준다고 전하였다. 특히 신문은 괴뢰집권자의 《경축사》에 《대북제안》이 전혀 없는것은 그 어떤 제안도 할수 없을 정도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 능력도 없는 그자신의 처지를 잘 말해준다고 평하였다.

또한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재침책동에 매어달리는 일본반동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운운하며 요사를 떨던 역도의 추태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괴뢰집권자의 《경축사》에 실망을 금할수 없지만 더욱 놀라운것은 박근혜가 남조선을 《무정적으로 대하는 잘못된 풍조》이니, 남조선을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니 하면서 마치도 불법세력이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있는듯이 진실을 외곡한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이 없어진다고 개탄하였다.

신문은 자기의 무능력에 대한 정당한 비난조차 《의도적인 트집잡기와 분렬조장》으로 몰면서 과거 《유신》독재시대의 구태의연한 정책만 되풀이하는 집권자의 꼴이 정말 보기 딱하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운운한 《랭철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나발을 좁은 시야와 랭전식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불통 1인자》의 말장난으로 조소하였다.

그러면서 력대 괴뢰집권자들가운데서 박근혜처럼 자기변명과 반대진영에 대한 악담으로 《8.15경축사》를 장식한 인물은 없었다고 까발히고나서 시민들이 력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면할 길이 없는 이유감스러운 《경축사》를 들어야 한다는것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역도의 《경축사》가 민중의 고통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맨채 뜬 구름 잡는 망상만 펼쳤다고 비난하면서 력사적인식도, 새로운 전망도 없는 역도의 《공허한 웨침은 령혼없는 박수만 남겼다.》고 조소하였다. 그리고 《창조경제》니, 《문화융성》이니, 《로동개혁과 일자리마련》이니 하는 박근혜역도의 나발은 해마다 반복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메아리라고 하면서 지금 집권자가 해야 할 일은 통절한 자기반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늙다리마녀가 갈 곳은 력사의 무덤뿐이다

함부로 주둥이질을 하지 말라

언제 돼질지 모를 송장같은 늙다리가 무엄하게도 우리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잡소리를 줴쳐댔다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청와대악녀가 이그러진 면새는에 주름투성이낯짝을 한 주제에 창피스러운것도 모르고 괴뢰군전방부대를 주린 개처럼 돌아치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마구 줴친것을 보면 망녕이 들어도 단단히 든 모양이다.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눈만 싸개지면 동족을 걸고들고 헐뜯는 이년의 못된 버릇은 죽을 때까지도 고치지 못할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함부로 도전해나서는 천하역적들은 꿈을 들어서라도 보조리 죽탕쳐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다.

지금 우리 한부들의 가슴은 멸적의 기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 개무리들을 다시는 푸른 하늘을 볼수 없게 수천척지하막장에 영영 처박아놓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이어놓고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더 높은 석탄증산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겠다.

고원탄광 지배인 한 용 철

개꿈속을 헤매는 청와대백치

박근혜가 놀아대는 꼬락서니는 신통히도 백치 한가지이다. 역도가 그 누구의 《경제난》이니, 《동요》니 하는 나발을 또다시 불어댔으니 어찌 백치라 하지 않겠는가.

괴뢰들이 상전과 야합하여 벌리는 반공화국《제재》소동이 물거품이 되여버린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어리석은 개꿈을 꾸며 돌아치고있으니 마치 죽기 전에 악취나는 흉찌로 메닥질하며 버드럭거리는 미친개를 보는것 같아 막 구역질이 난다.

적대세력의 사상 류례없는 압살책동속에서도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우리 공화국의 정이적인 현실앞에 세계는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민심의 증오와 버림을 받아 언제 명줄이 끊길지 알수 없는 박근혜역도가 그 누구의 《경제난》과 《동요》에 대해 횡설수설한것부터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역도는 다 꿰진 창호지구멍으로 남의 집대문을 흥보는 얼빠진것을 걸어치우고 찌그러져가는 제 집안일이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괴뢰역도는 천추에 용납못할 자기의 반민족적죄악으로 하여 이미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산송장이 되였다. 썩은내를 풍기는 청와대의 산송장이 북망산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부원 안 철 국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일이다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소식에 화들짝 놀란 박근혜역도가 그 무슨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비린청을 돋구었다는데 미국상전의 구린내나는 사타구니나 핥아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있는 년이 그 주제에 기가 살아 나발질한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의 강위력한 핵공격능력이 현실로 립증된 지금 미국은 언제 저들의 정수리에 멸적의 비수가 꽂힐지 몰라 불안에 잠겨 허둥대고있다. 그런데 제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상전의 바지가랭이에 바싹 매달리며 보호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박근혜따위가 《단호한 대응》을 떠들어댔으니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노릇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대포밥인 괴뢰군무리는 애당초 우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발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고 본때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일이다. 허재비같은 미국상전을 믿고 삼살개처럼 들까부는 청와대미녀가 다시는 구린내나는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게 자갈을 물리고 사등뼈를 분질러놓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옥류아동병원 부원장 리 광 천

《싸드》 사태가 고발하는 친미역적들의 추악한 정체(3)

《북핵폐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적망동

박근혜역적패당은 말끝마다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느니,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막기 위한 전략적선택》이라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얼마전에도 박근혜역도는 《국무회의》라는데서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이 현실화되고있다.》고 넋두리질을 하면서 《싸드》배치책동을 합리화하려들었다. 괴뢰국방부와 외교부패거리들도 《북의 핵, 미싸일도발대비》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남조선 각계의 《싸드》배치반대기운을 억누르려고 발광하고있다.

괴뢰들이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해 어지럽게 떠드는 목적은 단순히 《싸드》배치를 정당화하지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괴뢰패당이 《북이 핵, 미싸일을 포기하면 〈싸드〉배치를 포기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주제넘은 망발을 줴쳐대고있는것은 그들이 《싸드》배치문제를 핵문제와 련결시키면서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북핵폐기》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북핵폐기》나발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을 제거하기 위해 들고나온 날강도적인 무장해제론이다. 미국은 우리의 핵억제력을 말살하고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킬 흉계밑에 반공화국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하지만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은 걸음마다 실패를 면치 못했으며 오늘에 와서는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역적패당은 아직도 대세의 흐름을 가려보지 못하고 워낭소리 듣고 따라가는 눈먼 망아지처럼 미국의 《북핵폐기》소동에 맞장구를 치며 민족을 반역하고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집요한 대결근성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역적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핵폐기유도》로 정하였다. 원래 정치에는 일자무식이고 그 어떤 주견도 없는 박근혜가 《북핵폐기유도》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내세운것자체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의식의 산물인것이다.

박근혜역도는 말끝마다 북남관계를 가로막고있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북핵》이라느니, 《심각한 우려대상》이라느니 뭐니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시비중상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해외에 나가서는 《핵무기없는 세상》은 《북핵폐기》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미친년처럼 고아대면서 《넝면핵제방》이라는 무지스러운 망발까지 내뱉아 만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다.

괴뢰들은 미국의 조종밑에 《선 핵포기, 후 대화》나발을 불어대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았으며 나중에는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을 전면중단시켜 북남협력의 마지막실오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리였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이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의 앞잡이가 되여 《북핵폐기》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뛴것은 헛말로 바위차는 격의 무질없는 망동이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없이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왔으며 오늘은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적대세력의 《북핵폐기》소동은 종국적인 파산의 운명에 처하였으며 미국정계와 군부에서도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보이고 더없는 자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역적무리인 박근혜패당은 거덜이 날대로 난 《북핵폐기》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이제는 고철덩이에 불과한 《싸드》따위로 감히 민족의 재보를 흥정하려고 몸수없이 날뛰고있다. 그것으로 김빠진 반공화국핵소동을 추켜세우고 팔수에 배긴 《북핵폐기》의 얼빠진 망상을 실현해보려는것이다.

미국의 한갖 졸개에 불과한 박근혜역도가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입에 올리는것부터가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괴뢰들이 꿈꾸는 《북핵폐기》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한 망상인가 하는것은 이미 현실을 통해 여실히 립증되였다.

《문민》독재광인 김영삼역도는 지난 세기 90년대에 《북의 핵개발의혹》이니, 《국제공조체제》니 하는 불순한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의 돌격대로 나섰지만 결국은 겨레의 한결같은 증오와 규탄의 대상이 되였을뿐아니라 나중에는 상전에게서까지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말았다.

리명박역적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북핵위협》이니, 《핵을 이고 통일로 나갈수 없고 남북관계도 힘들다.》느니 하는따위의 쌀개빠진 나발을 불어대며 미국과의 반공화국핵공조구축놀음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역도에게 차례진것은 희세의 매국노라는 수치스러운 오명밖에 없다.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핵소동은 제손으로 제는 찌르는 격의 어리석은 망동이다.

이번 기회에 박근혜패당에게 다시한번 경고한다.

우리의 핵은 어떤 경우에도 흥정대상이 될수 없으며 《북핵폐기》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ㄱ-611385(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북괴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